



표적 폐업 철회하고 고용을 보장하라

삼성전자서비스 투쟁에 승리를!

삼성의 무노조 경영 신화가 깨지고 있다. 매년 수십조 원의 이윤을 내며 한국을 먹여 살린다는 삼성전자의 서비스 노동자들이 바로 그 주역이다. 지난 75년간 무노조 경영을 내세우며 노동3권을 대놓고 짓밟아 온 삼성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에 나선 것은 우리 모두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한다.

그동안 삼성이 저지른 악행들은 일일이 늘어놓기 벅거울 정도다. '사상 최악의 해양 재난'이라는 태안반도 기름 유출에도, 동아시아 분쟁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도, 여섯 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에도, 의료 민영화 추진에도 삼성이 있다.

삼성의 지배자들은 부정부패, 노동자 탄압으로 악명이 자자하지만, 언론·법조계·국가관료들과 맺은 거미줄 같은 인맥을 이용해 최소한의 법적 책임도 피해 왔다. 오죽하면 고(故)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가 "이건희와 이재용을 노동자들의 손으로 제거하는 날이 대한민국 법질서를 지키는 날"이라고 했을까.

그동안에도 삼성에 맞선 투쟁은 있었지만, 노동자들이 이처럼 규모 있게 조직과 투쟁

을 건설한 것은 처음이다. 지금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매우 의미 있는 전진을 일구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서비스 투쟁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사측의 탄압 속에서도 파업을 이어가며 용기 있게 싸우고 있는 것이 많은 노동자들을 자극하고 있다. 최근엔 같은 삼성 계열사인 삼성SDI에서도 노조가 결성됐다.

갈취

삼성전자서비스 투쟁은 많은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자신감과 희망을 주고 있다. '생활임금 보장하라', '위장도급 중단하라', '정규직 전환하라' 하는 투쟁의 요구는 오늘날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신음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최근 사측이 노동자들더러 "무리한 요구와 파업으로 경영이 악화됐다"고 비난하는 것은 정말이지 뻔뻔스런 거짓말이다.

지난 한 해 삼성전자가 30조 4천억 원의 순이익을 자랑할 때, 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어땠는가? 노동자들은 기본급도 없이 건당 수수료로 임금을 받으며 늘 불안정한 생활을 감수해야만 했다. 일이 적은 비수기에는 1백만 원도 안 되는 임금이 배를 곯아야 하는 이들이 수도룩하고, 성수기에는 일이 너무 많아 몸 굶아 가며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이 수도룩하다. 악랄한 사측은 심지어 수리하러 이동하는 시간도, 제품 점검 시간도 모두 무급으로 돌리고, 오직 부품 교체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했다.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고 마땅히 지불해야 할 임금조차 떼

먹고 있는 것이다.

사측은 최소한의 산업안전보건법조차 지키지 않아, 지난 두 달간 확인된 불법 사항만 무려 21만 2천8백69건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생활임금을 보장하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란 말인가? 삼성전자서비스의 실소유주인 삼성전자 사장 이재용은 한국의 부자 3위, 공개 재산만 3조 9천억 원이나 된다. 삼성전자 이사들의 평균 연봉은 52억 원이나 된다. 노동자들 턱에 이런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한 자들이 연봉 3천7백만 원도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있는가? 게다가 지금 노조 인정, 위장도급 중단이라는 최소한의 법조차 위반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란 말인가?

▶ 2면으로 이어짐



노동자 정치 신문

<http://wspaper.org/>

노동자연대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윤영일 해운대센터 분회장 인터뷰

“흔들림 없이 뭉쳐서 싸우겠습니다”

지난해 7월 14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설립 총회에 우리 해운대센터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참석했습니다. 저희는 노조에 1백 퍼센트 가입을 했고요, 유일하게 내외근이 다 가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측은 우리를 탄압하려고 갖은 수단을 다 썼습니다. 그러다 3월에는 지역을 떼어 갔습니다. 일감이 줄어서 저희 조합원들은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어요. 초반에 일부가 흔들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굳건히 버텼습니다. 계속 탄압을 해도 해운대 노조가 깨지지 않으니 이제 사측은 폐업 카드를 내민 것입니다.

[센터] 사장은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운대센터가 적자가 난 이유는 본사가 지역을 뺏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센터] 사장은 자기 지역을 떼어가도 좋다고 사인을 했어요. 사장은 그래도 원청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손해 볼 일은 없거든요.

사실 이미 서너 달 전부터 사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나 폐업하겠다’며 협박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위장폐업입니다.

위장 폐업

처음 폐업이 됐을 때는 솔직히 불안했어요. 그러나 저희는 더는 잃을 게 없었습니다. 뭉쳐서 싸우는 길밖에 없어요. 폐업 이후 추가로 탈퇴한 조합원도 없습니다.

전국의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조합원들이 “우리가 해운대다” 하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회와 분회들이 투쟁 기금 등을 보내며 많이 연대해 주고 있어요. 김해에서 1백만 원, 통영에서 1백만 원, 울산에서 1백만 원, 해남에서 라면 10박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에게 투쟁을 잘 하라고요. 폐업 당시 흔들리던 조합원들도 투쟁 기금, 연대 덕분에 다시 단합되고, 투쟁 의지가 높아졌습니다. 덕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해운대 주민들을 상대로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일 정도 서명 운동을 진행했는데, 5천 명 넘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하루하루 2배씩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삼성같은 대기업이 괜히 폐업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해운대에서 아무런 서비스를 못 받고 광안리, 동래까지 가는

불편을 겪다 보니까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부녀회나 지역의 진보정당, 사회단체 등이 저희에게 연대해 주고 있습니다.

언론은 삼성 자본에 짓눌려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노동조합을 설립했고, 설립할 수밖에 없었는지, 삼성이 우리들을 여름에 아침부터 밤까지 부려먹는데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체계를 강요를 한다는 것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희가 본사 직원인 줄 압니다. 우리의 진실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투쟁기금 후원 계좌

외환은행 620-226916-411
위영일(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장)

▶ 1면에서 이어짐

사측은 역겹게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협력업체 직원이므로 우리와 상관 없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삼성 마크가 달린 유니폼을 입고 삼성전자 제품을 수리하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자신들과 상관없다는 것인가? 수리비는 협력업체가 아니라 삼성전자서비스에 입금된다. 노동자들의 채용, 노동조건, 교육, 해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삼성전자서비스가 관리한다.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은 명백히 위장도급을 해 왔고, 이들이야말로 진짜 사장인 것이다.

더구나 최근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가 센터장들에게 노조 탄압 교육도 시키고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았다는 사실까지 폭로됐다. 원청이 노조 탄압까지 진두지휘한 것이다.

투지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런 문제들이 폭로되고 압박을 받기 시작하자, 그동안 해 온 것처럼 온갖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조합원들을 미행·사찰하고, 센터에서 각목으로 조합원을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3년간의 업무를 하나하나 문제 삼는 식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표적 감사도 진행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은 곳은 아예 일감을 뺏아 조합원들은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 이런 끔찍한 탄압이 최종범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제 삼성은 아예 센터들을 폐업해 노동자들을 내쫓겠다고 하고 있다. 3월 8일 해운대센터를 폐업했고, 아산·이천센터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받은 노조 현판을 들고 있다.

는 3월 31일자로 폐업을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동인천·분당센터 등은 경영실적 악화를 이유로 3개월짜리 단기계약을 맺었다.

이곳들은 모두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거나 노조 임원들이 있는 곳들이다. 핵심 센터들을 본보기로 삼아 집중 탄압하면서 다른 노동자들을 위축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의 악랄한 탄압에도 노동자들은 주춤하기는커녕 단단하게 버티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폐업 후 오히려 조합원들이 늘고 있다. 마산, 창원, 구포, 서수원, 성북 센터에 새롭게 노조 깃발이 올랐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장 임금이 오르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성과물이 만들어지고 있

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조직센터 동료들은 집단가입으로 화답해 주고 있습니다. 사측이 고용 승계를 거부한다면 전국 엔지니어들의 분노를 맞보게 할 것입니다.”

“(폐업에도 불구하고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삼성에 대한 분노가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삼성에 외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국이 해운대다. 우리가 해운대!”

해운대센터 노동자들은 폐업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선봉에서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삼성의 위장도급을 뚫고 보란 듯이 복귀할 겁니다. 삼성의 폐업 카드가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느끼게 해 주겠습니다. 삼성에게 이제 투쟁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

줘 고맙다고 했습니다. 우리 해운대는 남부의 모든 지역을 조직할 겁니다. 전국의 모든 센터들을 다니며 노동조합 깃발을 꽂을 것입니다.”

“해운대, 아산, 이천은 절대 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삼성에게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보여 줄 것입니다. 폐업 철회 없이는 임단협 타결은 결코 없다는 것을 삼성은 알아야 합니다.”

이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소중한 성과를 일구고 있다. 악랄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열사투쟁으로 차량 리스, 유류비 지급 등 성과를 얻었고, 교섭에서는 기본급 지급 등 양보안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은 싸우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현재 탄압에 굳건히 맞서면서 단결과 투쟁을 높여 나가야 한다. 저들은 가장 단단히 조직된 센터의 노동자들을 집중 탄압해 고립시키려 한다. “우리 모두가 해운대다”, “우리 모두가 아산, 이천이다” 하는 노동자들의 구호가 소중한 이유다. 조직을 확대해 파업 효과를 높이고, 연대 확대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구실도 중요하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단지 한 작업장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이는 전체 노동운동이 전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투쟁 기금, 해고자 생계 지원을 포함해 실질적인 연대와 지원으로 삼성전자서비스 투쟁을 뒷받침해야 한다. 골리앗 삼성에 맞서 싸우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노동자 연대를 보여 주자.